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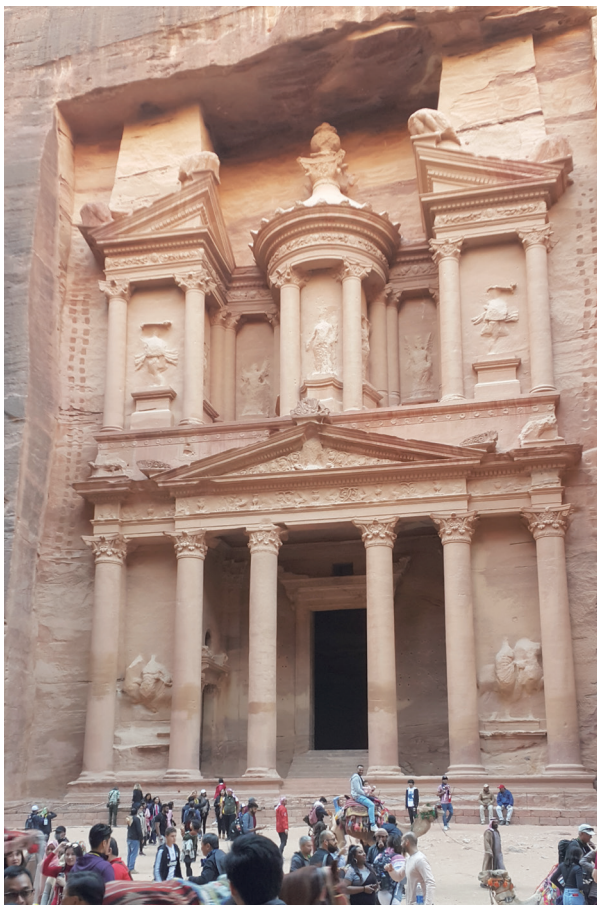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5. 24 ~ 2020. 6. 6 제226호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 요르단의 페트라 알카즈네(제공: WMM)

세이키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요르단의 산악 암벽도시 페트라. 해발 950m 고원에 암벽으로 이어지는

협곡 시크(Siq)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알카즈네가 눈앞에 비현실적인 장면처럼 서 있다.

기원전 6세기 아랍계 민족인 나바테아인(Nabatea)들이 건설한 이 왕국은, 그러나 1세기 로마에 점령당하고 두 번의 지진을 겪으며 사라졌다.

기암절벽을 깎아 아름답고 웅장한 도시를 만들고,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모든 것을 이룬다 해도 영원히 강성한 것은 없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높은 것을 낮추시고, 낮은 것을 높이는 강한 손이다. 그 앞에 두려움 없이 서 있을 자 누구인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입을 자들, 교만이 꺾인 자들만이 그 손을 힘입어 설 수 있다.

[GNPNEWS]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 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오바다 1:3~4)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뉴욕시, 코로나 사망자 수 부풀려... ‘정치적 목적 의혹’

미국 뉴욕시에서 모든 사망 진단서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망 원인으로 발급되고 있다고 기독교 세계관 전문 사이트 ‘TV(Traditional Value)넥스트’가 최근 전했다. 이는 코로나 사망자 수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또 미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실정을 부풀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총 사망자 6만 6541명(5월 15일) 중 뉴욕시 사망자는 2만 170명으로, 뉴저지(9946명)에 비해 두 배가 넘었다. 이에 대해 불공정한 비리들을 파헤치는 보수적 성격의 탐사보도단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 이하 베리타스)’는 뉴욕시의 모든 ‘사망 진단서’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모두 코로나바이러스를 사망 원인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뉴욕 장의사들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스테튼아일랜드의 코로

니얼 장의사 책임자인 란자는 베리타스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모든 사망 진단서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망 원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적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사견으로는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이 연방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더 많은 코로나바이러스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서 더 많은 연방 지원금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 퀸즈 지역의 디미셀리와 아들들 장의사 대표 조세핀 디미셀리도 프로젝트 베리타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관 중 한 명이 코로나바이러스 케이스가 아닌데도 전염병의 희생자로 명단에 올라간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면서 사망자의 여동생이 “죽은 언니가 알츠하이머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우린 시신 부검 요청을 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이었다고 사망 진단서를 받

부했던 의사로부터 사과와 함께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 소견을 다시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브루클린의 쉐퍼 장의사 책임자 조셉 안티코는 “만일 사망한 사람이 개인 의사의 관리를 받지 않았다면 그의 사인이 코로나바이러스로 굳혀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부검 검시 사무소의 인력이 늘어나는 시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리이다”(시편 5:6)

기도 |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거짓말하는 악한 영들을 파하여주시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전염병을 잠잠하게 하옵소서. [GN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10)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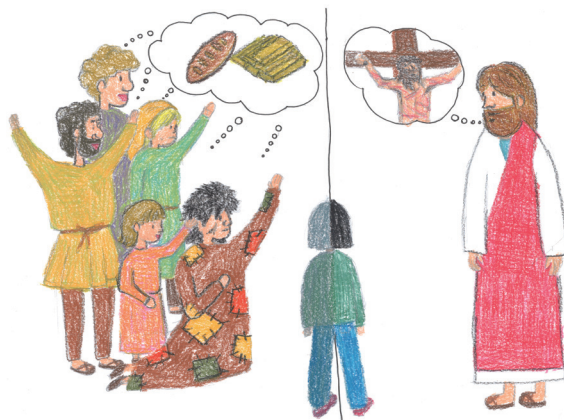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영생은 무엇이며, 우리가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제는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잠깐의 기쁨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원한 양식으로 오신 주님, 생명 주러 오신 주님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최고의 주목을 받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아십니다. 당장 밥 한 끼를 해결하는 일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구하라. 나는 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나라는 존재 자체를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내가 바로 너희의 복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떠나갔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기쁜 소식인 복음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우리 존재 안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극단적으로 반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일러스트=김경선

입니다. 모든 이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쪽과 저쪽으로 분명히

갈라집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부르키나파소,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기독교 핍박 심각



▶ 부르키나파소 성도들(©복음기도신문 자료사진)

사하라 이남 국가 중 코로나바이러스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부르키나파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기독교 핍박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온 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한국 순교자의소리(VOM)가 최근 밝혔다. 지난 2월, 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다녀온 마마두 카람비리 목사 부부는 부르키나파소에 코로나바이러

스를 들여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들은 부르키나파소 국내에 코로나바이러스를 들여온 주범이 기독교인이라고 비난하며, 기독교인을 전혀 동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현속 폴리 VOM대표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르키나파소의 기독교 핍박은 현재 아프리카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난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독교인과 기독교동체는 신앙 때문에 가장 가혹

한 시련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인들은 2020년 초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테러 이후,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또 부르키나파소가 현재 해마다 4월에서 6월까지 계속되는 기근을 겪고 있는데, 우기가 끝난 이 시기에는 식량이 충분하지 않다. 한편 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국가 전체에 '봉쇄' 명령을 내려, 수입원이 없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독교 난민이 거주하는 곳의 위생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난민이 된 기독교인들은 위생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공중화장실을 써야 했기 때문에 콜레라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여건에서 난민 기독교인들은 손 씻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르키나파소의 인구 2000만 명 가운데 개신교 기독교인은 3%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GNPNEWS]

아프간, 미·탈레반 평화협정 후 통제 불능 상태

은퇴 고위 경찰 탈레반 합류... 정부군 붕괴 우려

지난 2월 체결한 미국과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이후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은 무장 테러단체들이 신생 아까지 공격해 두 달 새 750명이 사망하는 등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 한편, 아프간 은퇴 고위 경찰이 탈레반에 합류하는 등 정부군의 붕괴도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12일 3명 이상의 무장 괴한들이 카불 서쪽의 다시트-에-바르치 병원에 진입해 수류탄을 터트리고 총을 난사해 신생아 2명, 산모, 간호사 등 14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괴한은 모두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병원이 자리 잡은 지역은 이슬람 시아파들이 주로 거

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테러의 배후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평화협정 후 3월 한 달 탈레반이 죽인 군·경과 민간인은 최소 344명이었고, 4월엔 411명이었다. WP는 최근 평화협정 체결 후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군에 하루 평균 55건의 공격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사상자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한편, 더 큰 문제는 미·탈레반 평화협정 후 아프간 정부군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직 아프간 정부군 장성인 압둘 잘릴 바크트와르가 탈레반에 합류했다. 바크트와르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서부 파라주에서 주경찰청장을 역

임한 인물로 지난 2001년 아프간 전쟁 발발 후 탈레반에 합류한 정부측 인사 중 가장 고위급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도 "평화협정 체결 후 아프간 정부군의 탈영이 증가했다."며 상당수의 아프간 정부군이 탈레반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 소장은 지난 3월 "(미래의) 역사학도들은 미·탈레반 평화협정이 베트남 전쟁의 종전과 섬뜩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어쩌면 2011년 미국이 이라크에서 (일부) 철군 후 다시 돌아갔듯이, 기나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전쟁의) 국면이 시작된 것 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GNPNEWS]

나이지리아, 납치범에게 전도하던 신학생 '순교'

나이지리아 무슬림 갱단에 납치됐던 한 신학생이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했다고 국제기독교연대(ICC)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1월 나이지리아 카두나에 소재한 '선한 목자신학교'에 다니던 마이클 은나디와 3명의 신학생들은 현지 무슬림 갱단에 납치됐으며, 납치범들은 이들의 몸값을 요구하며 협상을 시도했다. 이런 와중에 은나디는 납치된 첫날부터 갱단에 속한 이들에

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갱단의 두목인 무스타파 무함마드는 선뉴스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은나디는 면전에서 복음을 전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의 신앙이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마음의 편할 날이 없었다."면서 "젊은 친구가 신념을 드러내는 걸 원

치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다. ICC에 의하면, 1월 8일 납치된 은나디는 2월 1일 도로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납치된 이들 중 그가 유일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 갱단은 당초 몸값으로 25만 달러(3억 600만 원)를 요구했으나, 이후 2만 5000달러(약 3060만 원)로 줄였다. 그들은 신학교가 재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표적을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5. 4 ~ 5. 16)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동성애자 양심고백, 더 많은 코로나 감염 확산 예상 돼

한 남성 동성애자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이 클럽과 블랙수면방(짬방) 등 동성애자들의 문화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확진자는 클럽과 짬방 뿐이지만, 호스트바와 마사지사 등을 통해서도 감염이 확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12일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주님, 코로나19로 동성애자들의 은밀한 행위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진리와 질서를 거슬러 '옳다, 옳다' 하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국민들이 깨닫는 기회로 삼아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사태를 선한 열매로 나타내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28만 명 초과... 대부분 유럽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일 28만 11명으로 자체 집계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그 중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15만 6095명이 유럽 대륙에서 나왔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만 88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3만 1855명), 이탈리아(3만 560명), 스페인(2만 6621명), 프랑스(2만 6380명)가 그 뒤를 이었다.

국가와 사회가 결코 시스템, 관습만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밝니다. 완전한 절망이 허락된 은 유럽 땅에 다시 한 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기쁜 소식이 유럽 땅에 다시 한 번 선포되기를 강정합니다.

미국, 봉쇄 해제로 일부 주에서 현장 예배드리기 시작

미국 내에서 봉쇄가 해제되면서 교회의 현장 예배를 우선적으로 허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애리조나주와 아이오와주 등 일부 주에서는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

모이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연합해야만 복음의 생명이 자라나고 살아가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이 회복되는 미국이 되게 하소서.

아프간서 불공정한 식량 배급에 시민 시위 일어나... 최소 6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중부 구르주 카찬카란에서 라마단 기간을 맞아 구호단체로부터 식량 배급을 받으려고 줄서 있던 시민 수백 명이 주지사 사무실로 달려가 불공정한 식량 배급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져 경찰관 2명과 민간인 4명 등 최소 6명이 숨졌다고 10일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하나님, 배급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의 논리가 작동되는 아프가니스탄 땅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영혼에 만족을 주는 유일한 복음만이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이 됩니다. 교회와 증인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을 흘려보내주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5월 25일 ~ 6월 6일

- 5월 25일 ~ 5월 30일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최**)010-4145-3317, 5.25.27~30(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5.26(11~16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5.26,29(14~17시) ▶경기 의정부 / 의정부열방교회(김**)010-6269-4821, 5.29(0~24시) ▶울산 울주 / 우정교회(박**)010-8308-4628, 5.29(10시~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5.29(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5.29(09시)~30(12시) ▶대구 달성 / 하늘교회(정**)010-9557-5154, 5.29(22시)~30(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4교회 진행중.

- 6월 1일 ~ 6월 6일 6.1(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4501-9326-7767, 6.1~5(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6.2~5(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6.2,4~6(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6.5(10~14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6.5(13~24시) ▶경남 김해 / 함께지어져가는교회(이**)010-5598-5583, 6.5(19~21시) ▶전북 완주 / 상관교회(김**)010-4743-9397, 6.5(12시)~6(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6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기획 | 한국을 다시 경건하게 (1)

한국은 당신에게 어떤 나라인가?

위기의 한국 사회. 예레미야는 앞 드러지고, 거꾸러질 때,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기록하고 있다(렘 6:16). 이 땅에 허락된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찾아 길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다시 되짚어 보며 이때 우리가 취할 비를 역사 속에서 발견해 보자. <편집자>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압축하면 이렇게 나뉠 것이다.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라는 시니컬한 반응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키며 ‘헬 코리아’가 아닌, 굳이 사라진 ‘조선’이란 국명으로 오늘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풍자했다는 사실이다. 사라진 조선에 대한 냉소적 정서를 반영한 용어일까?

이 시대를 보는 또 다른 한편의 반응이 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꿈을 현실로 형상화한 나라, 코리아’라는 반응이다.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어 한 세대만에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반응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은 제각각이다.

모든 젊은 세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해 깊은 불만과 불신을 품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수많은 기회를 놓고 골라서 취업하며 오늘에 이른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부추긴다.

지금 그렇게 비난을 받고, 폰대 소리를 듣는 기성세대의 수십년 전 젊은 날은 어떠했을까? 각자 개인의 삶을 평균적으로 합산할 수

는 없지만, 그들 역시 그들 앞에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의 줄을 잡았을 뿐이었다. 그가 태어난 세대에 그 ‘시대의 아들’로 자신의 삶에 충실히, 때로는 반항하며 지금의 세대가 되었을 뿐이다.

태어나보니 식민지 국가의 국민이었던 우리 선조들도 있다. 그 세대는 이제 상당수 이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당연히 일본어를 써야 했고, 일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떤 맘이었을까?

일제 시대에 살았던 젊은이들은 선배들에게 이렇게 비난했을까? “어떻게 살아왔기에 나라를 빼앗겨서 후손들에게 이런 나라를 안겨 줬나요?” 당시 어떤 젊은이들은 의협심에 맨손으로 만주벌판으로 달려가 김좌진 같은 독립군이 됐다. 월남 이상재처럼 이 땅에서, 운동주처럼 일본에서, 우남 이승만처럼 미국에서 내일의 독립을 꿈꾸며 공부하던 젊은이도 있었다. 또 한편으로 이 땅에서 그 어떤 직업도 소망 없던 시대에 제복을 입은 군인이 되어 나라를 구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꿈꾸며 일본군으로 자원한 젊은이도 있었다.

어느 시대나 선배들이 살아온 세상과 그들의 선택에 대해 아쉽고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러한 때, 우리가 참고할 한 믿음의 선배가 선택한 방법이 있다. 바벨론에 포로 신분으로 끌려갔던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힘을 내어 금식하며 기도한다.

“주여! 조상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라의 멸망으로 포로 신세가 된 지금, 누구를 탓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와 우리 조상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이 시리즈는 바로 그런 의도에서 오늘에 이르러 된 지난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자는 의미로 시작한다. 오늘의 관점으로 지난날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며 지난날을 되새겨 보는 역사와의 대화를 시도해본다.

첫 개신교 선교사, 칼 귀츨라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19세기 말 조선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이 발을 디딜 수 없는 은둔의 땅이었다. 더욱이 1866년 병인박해 때 무려 8000명에 달하는 천주교인이 죽임을 당한 이 땅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믿음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다. 가장 소망 없어 보이는 때,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시기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 겨자씨 한 알이 뿌려졌다.



▶ 조선의 첫 개신교 선교사 칼 귀츨라프가 방문했던 고대도(출처: 네이버 블로그 캡처)



▶ 1930년대 통학하고 있는 배재고보(培材高普) 학생들(출처: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개신교 선교사로서 가장 먼저 조선을 방문한 사람은 독일 출신의 칼 귀츨라프다. 할레대학 출신의 귀츨라프는 1827년 초 7개월간의 항해 끝에 동남아 바타비아에 도착한다. 바타비아는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옛 이름이다. 이곳에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귀츨라프는 아내와 사별한다. 풍토병에 노출되어 있고 제대로 된 의료체계가 없던 시절,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의 목숨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다.

그는 아픔을 딛고 사역지를 중국으로 옮긴다. 이곳에서 그는 조선의 소식을 듣고 동인도회사 소속 로드 암허스트호에 탑승해 1832년 2월 27일 광둥(廣東)을 떠난다.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시장 개척에 열의를 보인 영국의 통상에 적합한 항구를 조사하고 통상개시를 위한 이 선박은 7월 17일 황해도 장산곶 부근에 도착한다. 귀츨라프 일행은 그곳에서 한문으로 필담을 나누며 가지고 간 책과 물건을 주며 접근했지만, 조선인들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뜻 접근하지 못했다. 감자 재배법도 알려주며 접근했지만, 쇠국정책으로 문을 쾅쾅 걸어 잠근 조선에서 그는 사람을 만나기조차 어려웠다. 그리고 배는 남쪽으로 옮겨 충청도 흥

주만 고대도 앞에 정박했다. 고대도 앞에 정박한 이후, 이들은 배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전도문서를 나누어주기도 했다. 이후 귀츨라프측은 선물과 함께 조선 정부에 교역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거절로 로드 암허스트호가 이 땅을 떠나면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방문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귀츨라프는 체류기간 중 한국인들에게 인류의 구세주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들의 구세주임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전도문서와 성서를 배포했다. 이 여정을 마치고 그는 항해기에 이렇게 남겼다.

“조선에 파종된 하나님의 진리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없어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쇠국정책을 거두어 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이 같은 믿음의 기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씩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후 조선 선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는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에 탑승해 한국에 입국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세워졌다. <계속>

[GNPNEWS]

C.K.

코로나19 이후 “교회학교, 비대면 콘텐츠 개발, 가정 역할 강화 해야”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코로나19 목회 세미나 주관

“코로나19 이후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신앙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과 가정 역할 강화, 세대가 함께 드릴 수 있는 통합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진단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목회를 위해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주최로 지난 5월 7일 부산에서 열린 목회 세미나에서 홍용희 목사는 이처럼 비대면 교육콘텐츠 개발, 가정 역할 강화, 세대통합예배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홍 목사는 비대면 교육콘텐츠는 각 부서별 예배 및 설교를 온라인

으로 공유하며 가정으로 찾아가 자기 스스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공과 학습을 하며, 모임 숫자나 횟수보다 의미 중심의 모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정 역할의 강화는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의 신앙활동을 다른 가정과 공유하며 부모님이 읽어주는 성경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대통합예배는 교회학교의 성장이 교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기성세대와 다음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세대통합예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같은 비대면 콘텐츠 개발의 실제적 필요가 목회 현장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는 5월 첫주 어린이주일 예배를 통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예배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교육관 증축과 어린이방송국 시설을 마련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대(對)사회 섬김사역을 발표한 김대환 목사(덕천제일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계망 단절, 사회복지 기관들의 서비스 중단으로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교회가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이러한 방침의 일환으로 덕천제일교회에서 “애프터유(After you) 운동을 통해 마스크, 생필품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성도들의 생업을 함께 나누며, 임대료 인하 운동, 지역주민 생활비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코로나19와 실물경제에 대해 김태우 박사(한국예탁결제원)가 소개했다. 김 박사는 “그동안 글로벌 경기침체가 ‘공급’이나 ‘수요’ 중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이번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는 ‘공급’과 ‘수요’ 모



▶ 강연하고 있는 홍용희 목사(출처: 유튜브 채널 부산성시화 캡처)

두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간 유가 전쟁으로 저유가가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급격한 충격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이 실물경기로 옮겨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GN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34)

진화론은 우리가 '바위'에서 나왔다고 가르친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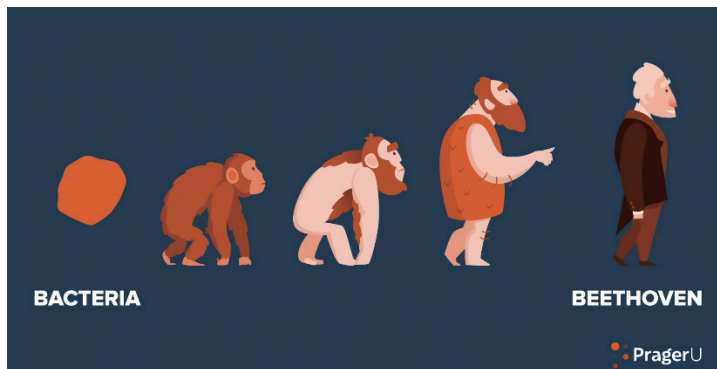
대홍수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가 어떻게 방주에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을 넣을 수 있었는지 질문한다. 그에 대한 답은 이렇다.

첫째로, 육지 동물만 실었다. 둘째로, 코로 숨 쉬는 것만 실었다. 곤충은 실지 않았다. 셋째로, 새끼들을 실었다. 그건 그냥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 모든 가지 수 대로가 아니라 종류당 둘씩 실었다. 그 종류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할지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크기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동물들을 실어야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세상에 약 8000가지의 기본 종류의 동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 8000가지의 기본 종류의 동물들을 노아가 2마리씩(창 7:9), 어떤 것은 7마리씩(창 7:2)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방주

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그럼 방주는 얼마나 컸을까? 무신론자들은 노아가 그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실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의 동물이 있었는지와 방주는 얼마나 컸는가에 대해 질문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뿐입니다.” 그나마 이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진화론보다는 낫다. 그들은 180~200억 년 전에 무(無)가 폭발한 빅뱅이 있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46억 년 전에 지구가 식어서 암석 같은 표면을 형성했으며, 지구가 형성될 때 표면이 뜨거워서 거대한 부글거리는 '용암 못'들이 있었다고 가르친다. 교과서는 지구에 산소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그 후 수백만 년 동안 그 암석들 위에 비가 내려서 바다가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 바다의 소용돌이치는 물은 복잡한 화학 물질이 부글거리는 용액이고, 이 복잡한 화학 물질의 액체가 살아있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은 매우 느리다고 주장한다. 매우 느리다는 이야기에 동



▶ 진화론은 박테리아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베토벤'이 된다고 가르친다.(출처: 유튜브 채널 PragerU 캡처)

의한다. 왜냐하면 생기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느리다.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생명체가 바다 밑의 암석에서 시작했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암석에서 나온 것이 된다. 그들은 또한 “최초의 자기 복제 기관이 유기적 액체에서 출현했음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그들의 이론을 정리하면 200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 46억 년 전에 지구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뜨거운 암석 덩어리였다. 그리고 비가 계속해서 내리기 시작해서 마침내 바다가 채워졌고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액체'였다. 그것이 진화론이다.

한번은 대학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어 이렇게 부탁했다. 대학생들 앞에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토론하러 오는 건 싫지만 우리 교수들이 원하는 질문을 다 하게 해주면 당신이 와서 학생들에게 강연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의 답변에 나는 “그것을 위해 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답했다.

그곳에는 6명의 교수들과 모든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나는 사자 굴

에 있는 다니엘처럼 느껴졌다. 나는 두 개의 시간표들을 꺼내놓고 말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제가 믿기로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4400년 전에 모든 것을 파괴시킨 홍수가 있었고 노아가 각각의 종이 아니라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에 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다양한 동물들이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고 있는 것을 말해 주었다. “여러분들은 200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 46억 년 전에 지구가 식었고, 비가 바위에 수백만 년 동안 내려서 바다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생명체가 30억 년 전에 살아났다고 믿습니다.”

내 말에 한 교수가 화를 냈다. “호빈드씨, 지금 이 세상에 개의 종류가 거의 400가지가 되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그 모든 개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두 마리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그걸 믿으라고요?” 나는 말했다. “교수님, 당신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좀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학생들에게 그 모든 개들이 바위에서 나왔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그 이후로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GNPNEWS]



선교 통신

아프리카 M국의 수치 문화... 코로나 걸려도 알리기 꺼려

이곳 사하라 사막에 위치한 M국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다고 생각하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내오던 사람들이 최근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1명 발견되고 이웃 나라에 확진자가 수십 명으로 늘어나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중국 사람으로 알고 피하기 시작했고, 길거리에서 “코로나 코로나” 하면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와 물건을 주고받을 때, 감염을 의식해서 되도록 접촉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지난 3월 14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1주일간 휴교령을 내렸고 이 휴교령은 3월 21일부터 2주간 연장되었으며 아울러,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금지가 시행됐습니다. 현재 정부 당국에서는 확진자를 2명(모두 외국인)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현지인들조차 이 통계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지난 14일까지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공항을 통해서 입국했고, 16일

공항 폐쇄 직전까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항공기들이 운항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수치 문화'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가문에 먹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문에 먹칠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안겨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치 문화로 인하여 집안에서 개종자들이 생기면 그 누구든 죽이곤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수치 문화의 차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



▶ M국 광야에 있는 한 가정집(©복음기도신문 자료사진)

로나바이러스의 전염성과 위험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창피하고 수치가 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사망자가 나와도 그 사실을 알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를 위한 시설이나 시스템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견잡을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 우리는 사막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14일 갑작스런 휴교령으로 인근 국가에서 공부하던 막내딸은 학교 기숙사에 있지 못하고 지난 15일 밤 비행기로 M국에 입국했습니다. 그 전날 육로를 통해 택시로 입국하려 했으나 14일 오후 당국의 갑작스런 육로 국경 폐쇄 조치로 사태가 급박해지기 시작해 부랴부랴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이 한국 사

람이라는 게 문제가 되었고, 결정적으로 함께 타고 온 승객 중 프랑스에서 출발한 승객이 있다는 이유로 한 호텔에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핸드폰 영상 통화로 아이와 아내가 많은 안정감을 누리고, 주일에는 아이와 함께 시편 57편을 통해 아들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던 다윗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자고 나누었습니다.

M국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 심리로 코란을 더 읽고 크게 틀어놓는 등 알라가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시기에 저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져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GNPNEWS]

심엘리사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복음의 능력

완성된 사건, 부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근원이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부활절은 휴일이나, 거룩한 날이 아닌 완성된 '사건'이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분의 승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전심으로 새 생명을 바라봤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살아갔다. 이 부활은 과거에 완성된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완성된 사건이다.

[GNPNEWS]

십자가에 못 박히라
(A.W.토저.2015)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직장을 다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시 교회에 나갔다. 그러나 뭔가 모를 답답함이 있었다. 늦게 예수님을 만난 다른 성도는 열심히 대단한데, 정작 자신에겐 열정도,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한 강선자 집사는 그때 비로소 믿음생활을 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믿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제대로 믿자고 결정한 이후,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들이 그리 축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약간의 편법을 쓰면 축구를 할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죠. 마음이 찝찝했어요. 그렇지만, 한번 말이 나온 뒤 아이의 진학을 취소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는 결국 한 학기만 하고 축구를 그만뒀어요. 그때쯤 교회 집사님이 복음학교를 소개해 주셨어요. 가고 싶었지만 처음에는 남편의 반대로 참석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믿는 사람이 아닌데다, 훈련에 참가하려면 집을 일주일이나 비워야했거든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남편의 태도가 바뀌어서 복음학교에 다녀오게 됐어요.”

-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5박 6일 동안 은혜는 있는데, 주님이 나를 여기 왜 불러주셨을까? 질문이 생겼어요. 하루하루 흐르면서 여기 오는 동안 우리 아이들을 돌봐준 집사님들에게 뭐라고 해야지, 은근히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날 강의시간에 ‘너를 선교적 존재로 불렀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게 먼저는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그동안 주님과 이런 만남을 해본 적이 없었던데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반드시 중보기도 학교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선교적 존재니까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거죠.”

“너를 선교적 존재로 불렀다”

- 주님의 음성에 바로 순종하셨군요.

“처음에는 강의만 듣고 바로 귀가해서 일상 생활에 큰 변화가 없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훈련 과정 중에 합숙으로 집



말씀을 따라가는 강선자 집사(꿈꾸는교회)

회에 참석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반대하기 시작했죠. 심할 땐 이혼 얘기도 나오게 됐어요. 처음에 중보기도학교 하면서 말씀을 잘 모르니까 결단했어요. 주님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고요. 그게 제가 주님께 드린 첫 고백이었어요. 근데 멈추라는 사인이 뭔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았죠. 남편의 반대는 계속 심했어요. 그런데 더 큰일이 생겼어요.”

- 어떤 일이었나요?

“중보기도학교에서 떠나는 아웃리치 기간이 가족 행사와 맞물렸어요. 식구들에게 행사가 있는 기간에 해외로 아웃리치를 간다니까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진짜로 간다고 하니깐 선교는 선교사가 가야 된다면서 심하게 반대했어요. 날마다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멈추라는 사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멈추라는 말씀이 없으면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웃리치를 준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날 때 주님이 터를 바꿔 주시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부모가 매일 다투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는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죠. 주님이 터를 바꿔 주시겠다고 했다고요. 집을 지으려면 헌집을 다 부숴야 되는데, 그러면 시끄러울 수 있다. 지금은 그런 과정이다. 믿음으로 가려다보니 소란스러운 것이라고요. 아이가 알겠다고 하면서도 이해는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군요?

“그렇게 아웃리치를 떠났어요. 그런데 아웃리치 다녀온 이후 더 겁이 났어요.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전화할 때마다 떨렸어요. 믿지 않는 분은 오히려 건강하게 다녀와서 다행이라고 하셨지만, 가족과 친척들은 대부분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그때는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 당하는 것 같고 그들의 어려움은 몰랐죠. 시간이 지난 이후 주님이 그분들도 저를 바라봐야 되는 게 힘들었다는 것을 알려 주셨어요. 관계도 회복됐어요. 주님의 은혜죠. 이제는 가족들이 우리 집에 오리지널 집사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 남편도 제게 진짜 집사라고 말해 줘요.”

- 시련은 있었지만, 진짜 믿음이 돋보이는 시간이었네요.

“주님이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는 매일 같이 울면서 버스를 타고 훈련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워갔던 것 같아요. 내 열심이 아니라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한 거죠. 그때 주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요. 그땐 잘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거 아니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구나.”

- 그 이후 믿음의 길은 어떠셨어요?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이제 진짜 전쟁이겠구나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첫째 아들이 축구를 그만두고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중학교를 다니면 아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학교에 안 가겠다고 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학교에 안 가겠다고 하는 애를 깨워서 보내고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학교에서는 계속 벌점통지를 보냈어요. 저는 일주일마다 학교에 불려가고요.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다시 가르쳐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학교에 아예 안 나오면 퇴학이 되니까 매일 몇 시간 있다가 가면 수업 일수는 모자라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 그럼 그때부터 아이 옆에 계시는 시간이었겠군요.

“그때부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쇼핑하고 싶다면 쇼핑하고 영화보고 싶다면 보여줬어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니까 아이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기간이 남은 집을 비워 달라고 했어요.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요. 당시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던 저는 옮기라는 주님의 사인이라고 여겨졌어요. 선교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었죠. 그러나 아이가 좋은 학교를 졸업하기 원하는 남편의 반대로 이사를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증상이 더 심해지자, 남편이 결국 이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 힘든 시간이셨네요. 이사하고 좀

이었어요. 예상치 않았는데 아들이 원서를 받아서 줄줄 쓰는 거예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거죠. 캠프를 마치고 아이가 돌아왔는데 얼굴이 완전 달라져 있었어요. 빛이 났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헤브론원형학교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곳은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독교인대 가겠다고 했어요. 아빠가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의 첫마디는 ‘큰일 났네.’였어요.”

“가족과 씨름하며 믿음을 배우다”

-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실감하게 되네요.

“아이가 와서 고백하기를 ‘아빠는 예수님 못 만났지? 난 예수님 만나고 왔다. 이제 학교 안 가겠다.’고 했어요. 선교사 할 거라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받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가 될 거라고, 순교할 거라고요. 완전히 변해서 왔는데 아빠는 안 받아들였죠. 남편은 일단 학교를 가라. 나중에 신학을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들이 ‘나는 발의 보화를 발견하고 왔는데 왜 똥 보자기를 들고 가라고 하나.’며 따졌죠. 보화는 복음이었고, 똥 보자기는 이전에 살던 자신의 삶이었어요. 아이는 자기가 다시 학교에 가면 예전처럼 될까봐 겁난다고 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 같아요. 그러나 아이가 말씀과 기도의 기반이 없으니 결국 아빠의 설득에 무너지더라고요. 아빠한테 학교에 돌아갈테니 핸드폰 바꿔 달라고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과 함께(제공: 강선자 집사)

나아졌나요?

“그런 시기에 평소예 교제하고 지내던 두 가정이 휴가를 함께 보내자고 펜션으로 우리 가정을 초대했어요. 그때 기독교인 헤브론원형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우리 아들에게 학교에서 하는 캠프에 초대했었어요. 다음세대 아이들이 같은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

그땐 절망이 찾아왔죠. 한편으로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아이가 3학년 2학기 때 이사를 왔는데 겨우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는 안가겠다는 거예요. ‘학교 가도 배울게 없다. 학교가 지옥 같다.’ 아빠는 학교 가서 잠만 자더라도 졸업만 하라고 했죠.”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나는 기도하리라 (4)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캄캄한 밤 같은 절망의 시대, 주님의 눈길이 딱 머문 한 사람이 있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행 13:22) 주님은 다윗의 중심을 알고 계셨다. 어떤 시련에도 그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매달릴 사람이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며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마 15:24) 말씀하시며 또다시 외면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은 더욱 간절히 매달렸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마 15:26)고 시험하시는 예수님께 오히려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마 15:27)라고 고백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시험 들어 도망갈 법도 한데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께 더욱 바짝 따라붙었다.

자식 못 낳는 설움과 마음의 고통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한나, 그녀 또한 고통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고통이 될 때까지 기도하던 한나는 드디어 자신의 기도의 한계(限界)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아들을 주시면 종으로 바치겠다.’며 서원(誓願)하기에 이른다.

암울했던 사사시대, 잘난 남자들, 잘난 성직자들, 잘난 장로들 많았



일러스트=노주나

지만 하나님은 그들 대신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한 여인, 하나님 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던 한 여인을 찾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전심(全心)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

나님 한 분 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한나 자신의 고통에서 출발한 기도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서원의 자리로 승화(昇華)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그

러다 기도의 양이 찼을 때, 주님은 드디어 천하고 고통받는 한 여인의 그 작은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담으셨다. 그리하여 한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냈던 다윗 왕국의 통로가 되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한나의 서원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통로였던 것이다.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더딘 것 같고, 너무 불합리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구애(拘礙) 받지 않으셨다. 우리의 육적인 상식과 헤아림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2018년 1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과 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복음을 영화롭게하라”
GLORIFY THE GOSPEL!

Text Book : 3만원
EFL : 2만 5천원

헤브론원형학교와 헤브론교육선교대학이 복음스터디 수업에 사용한 영어 복음 교재가 출간됐다. 주교과서로 사용돼온 ‘GLORIFY THE GOSPEL! Text Book’과 영어교육을 위한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교재 두 종이다. 집필은 헤브론 전략적 교육선교 공동체(Hebron Strategic Educational Mission Community, Hebron_SEMIC)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The textbooks used in Gospel Study class in The School. Hebron and Hebron Educational Mission College were published. These are the two main textbooks: ‘GLORIFY THE GOSPEL!’ and ‘EFL textbook’ used for English education. Each book costs 30,000 won and 25,000 won. Hebron Strategic Educational Mission Community (Hebron_semic) also joined to write it.

구입문의 Purchase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내가 돌아갈 곳은 말씀뿐이었어요

- 또 어려운 시간이 시작됐네요. “아빠는 아이가 학교를 그만 두겠다는 것을 못 받아들였어요. 고등학교에서도 별점이 날 아왔어요. 저는 또 학교로 불러다녔어요. 한번은 제가 일주일 집을 비운 사이에 남편이 학교로 불러갔어요. 그때 더 이상 못 보내겠다고 결정하고 자퇴를 시켰어요. 그렇게 고1 때 그만뒀죠. 그런데 제가 아이와 집에서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낮과 밤이 바뀐 아이를 볼 자신이 없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저 애는 신생아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먹고, 자고, 게임만 할 줄 아는 신생아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먹고, 자는 게 그 아이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 말이 많았어요. 속상했죠. 그때 시편 37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주님이 쓰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게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마음도 주셨죠. 정말 감사했어요. 하루하루 아이를 지켜보며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내가 돌아갈 곳은 그 말씀 뿐이었어요.”

-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셨군요.

“지금은 이 아이가 ‘그때 나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졌잖아.’라고 말해요. 그 어려운 시간에 육적으로 싸웠다면 관계가 어려워졌을텐데 말씀 덕분에 지금은 제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도 웃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어요. 여전히 아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씩 교제할 때 주님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GN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꿈꾸는 교회에서 브레미야52기도로 열방을 구하고 있다. (제공: 강선자 집사)

“저는 물에 빠진 감자는 싫어요”



일러스트=고은선

한 주 동안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재훈련 과정 마지막 날 아침식사 시간이었다. 나는 들깨버섯 감자국에 들어간 감자를 다른 분에게 건져 주고 있었다. 한 선교사님이 말했다. “선교사님은 감자를 안 좋아하세요?” 나는 “제가 물에 빠진 감지만 이상하게도 좋아하질 않아서요.”라고 답했다. 그분은 웃으시며 “감자를 존재 그대로 사랑하지는 않으시는군요.”라고 말했다. 아침식사는 그렇게 유쾌하게 끝이 났다. 주님은 이 작은 사건으로 내 내면

을 들여다보게 하셨다. 공동체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 사람과의 관계다. 난 나와 의견이 충돌되는 지체를 존재 그대로 받지 못했다.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거나 권면을 할 때면 그동안 잘 지내던 사람에게도 어느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했다. 의견이 부딪칠 때면 분노와 열기가 일어났다. 이런 나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두려웠다. 이런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선교사로 헌신했다. 주님을 떠나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목마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사랑이면 충분히 이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서 나의 내면은 요동을 쳤다. 나의 옛자아를 부인하며 하루하루 잘 살고 있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아닌 최선의 한계에 매달려 있는 나의 실체를 보게 됐다. 부딪칠까봐, 좋았던 관계가 깨어질까봐, 믿음의 걸음이 실패한 자리에 서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자기보호와 자기방어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다. 물에 빠진 감자를 싫어하듯, 내가 원치않는 사람을 골라내는 나. 그것은 자기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게 됐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눅 1:74~75)라는 말씀으로 내가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이 믿어졌다. 그 순간 평생토록 나를 묶고 매이게 했던 병든 옛 자아가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이 믿어지면서 주님이 나를 존재 그대로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영혼을 그렇게 존재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졌다.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내야 하는 의가 아니라, 주님이 내주하셔서 살게 하시는 복음의 의에 참여해 한 걸음씩 걷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까지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한순간도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는다. 오늘 하루 더욱 마지막처럼 사랑하며 살길 간절히 소망한다. [GNPNEWS]

정인숙

그림 묵상



© Blessom

깨어있으라!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처녀들은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미리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될거야. 아! 몰라. 나중에 할래.’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상황과 사정에 집중했던 처녀들은 주님께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GNPNEWS]

글. 그림 이수진

부흥을 위하여

왜소화하는 북한군 징집 대상 키 하한선, 145cm에서 142cm로 낮춰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은 남한과 12년 가량 차이가 난다고 모퉁이돌선교회 5월호 ‘정세와 선교’가 북한의 실상을 소개했다.

통계청의 2013년 발표통계에 따르면 남한 주민의 기대 수명은 남성 78.2세, 여성 85.0세인 반면, 북한 주민은 남성 66.0세 여성 72.7세였다. 남한 주민의 기대 수명 차이는 주로 영아 사망률에서 기인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2.0명으로 남한(2.9명)의 7.6배에 이른다. 통계청은 40년 후인 2055년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7.1명으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남한(0.6명)에 비해 여전히 높

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주민은 영양 공급량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2013년 기준 북한 주민의 1인당 하루 영양 공급량은 2094Kcal에 불과했다. 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1일 권장량(2500Kcal)이나 세계 평균치(2870Kcal)에 모두 못 미치는 양이다.

북한 주민 영양 공급량 세계 평균치 못미쳐

북한은 현재 이미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다. 2015년 기준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94명(유엔 집계)~2.02명(통계청)으로 추정된다. 북한처럼 저개발국에 속하는 나라들의 평균 출산율은 4.74명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통일의 인구·보건·복지 통합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 1인당 GDP가 낮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높는데, 북한은 특이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남성의 장기간 군복무 때문에 결

혼 연령이 늦고 △여성이 장마당, 밀무역 등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점 등을 지적했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소득 수준에 비해 출산율이 일찍 낮아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나 중국 등은 고도 성장기에 젊은 인구가 늘면서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북한에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의 평균수명은 70.6세로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세계 평균 71.4세와도 큰 차이가 없다. 아이를 적게 낳는 반면 수명이 길어 북한은 이미 2001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로 접어든 상태다. 2027년 고령사회(노인 비율 14% 이상), 2038년 초고령 사회(노인 비율 2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과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보고서는 “이 정도로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고령화가 그만큼 진전된 경우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영양부족으로 왜소한 북한군, 전력에도 차질

신체의 허약과 왜소화에 따른 북한군 전력 차질도 예상된다. 북한은 징집되는 북한군 신병의 키 하한 기준을 145cm에서 142cm로 낮췄다. 북한에서는 만 17세가 되면 신병으로 징집되는데, 142cm는 남한의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만10세)의 평균 키(140.2cm)보다 조금 큰

수준이다. 영양부족으로 체구가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만 17세 기준으로 한국의 남학생 평균 키는 172.7cm이나, 북한은 160cm가 안될 것으로 보인다. 키 142cm인 북한 병사들이 매고 다녀야 할 개인 화기인 자동보총(개량형 AK47)의 길이는 87cm, 북한군 분대 기관총의 길이는 127.2cm로 어깨에 매면 땅에 끌릴 정도다. 북한에는 매년 많은 아사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매년 수천 명이 아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황해남도 해주시 인민위원

회에서 농작물 관리를 담당하다 탈북한 최영철씨는 한 심층 인터뷰에서 “산간 마을에서는 화전이라도 일구지만 농사할 땅이 협동농장 밖에 없는 평야지대에서는 리(理)마다 매년 30~40명씩 굶어 죽는다. 수확한 식량을 전부 뺏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매년 이 지역 협동 농장들에 “1정보(3000평)당 6t을 생산하라. 그 중 2t은 농장원들에게 주겠다.”는 지시를 내린다. 그러나 실제 수확량은 1정보당 2~4t이다.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권력 부서들과 군대가 가져가고 나면 농민들 몫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벼를 흙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몰래 구들장 아래, 숨이불 속 등 집안 곳곳에 숨기는 식량이 1정보당 1.5~2t 풀인데, 이는 전체 수확량의 절반에 이른다.

[GNPNEWS]



▶ 북한에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출처: OpenDoors 캡처)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리처드 웹브란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공산주의는 성도들의 자녀를 ‘무신론자’로 만들었다”



리처드 웹브란트 지음
| 순교자의 소리 옮김 |
순교자의 소리 | 177p | 2018

리처드 웹브란트(Richard Wurmbrand) 목사는 1967년 순교자의 소리(VOM Voices of the Martyrs)를 설립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체포되어 14년 넘게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 이 책은 잔혹한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당했던 끔찍한

고통과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증인의 이야기이다. 또한, 지금도 곳곳에서 박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믿는다.

리처드 웹브란트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공산주의 못지않게 확고부동한 무신론자였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었지만, 한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슬퍼하기도 했다. 그러한 그의 회심은 평범한 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어느 날 한 목수는 회심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많은 시간 기도한다. 웹브란트는 그를 통해 받은 성경을 읽고 마침내 회심하게 됐다.

당시 루마니아는 나치 치하(治下)에서 엄청난 공포를 겪었다. 1944년 8월 러시아군 백만 명이 루마니아에 들어와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한다. 웹브란트 목사는 이 때 지하

교회 사역을 하며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러다 어느 주일날 공산주의자들에게 납치되어 수감됐다.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잡혀가는 일들이 많았다. 감옥에 갇혀 매를 맞으며, 잔인한 고문과 살생(殺生)을 마주해야 했던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들은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에 깊이 잠길수록 고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그 고난을 통과했다. 그러나 신체를 고문하고 죽이는 일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자녀들을 ‘완강한 무신론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 안의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생각과 사상을 바꾸며 무신론자가 되게 했고, 감옥에서 돌아온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었다. 또

한, 부모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다 발각될 경우 자녀들을 빼앗아 갔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겪는 말할 수 없는 대가와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면서도 뒤돌아서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은 내 영혼에 참 기쁨이 되었다. 아무 소망 없던 그 때에 절실히 필요했던 그 믿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가!

‘회심해야 될 자를 만나게 하소서’

칠룩 같은 어둠속의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은 그 참담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셨다. 공산주의자들이 가둔 감옥에서 공산주의자들을 향한 구원이 시작 된 것이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구타하고 고문한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여 마침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였다. 부모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공산주

의 학교에 다니게 되었던 아이들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각을 외쳤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하지만 공산주의를 고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산주의를 고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반드시 죄라는 이름으로 분명하게 불러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죄 중의 하나입니다. 꽃들이 밭에 짓밟혀도 향기로 보답하듯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고문당한 기독교인들도 자신들을 고문한 자에게 사랑으로 보답했습니다. 내가 지하교회에서 듣고 온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GNPNEWS]

정준영 선교사

심각한 다음세대 성교육 (2)

초등 교과서의 성교육이 성적 자극 부추겨

최근 인터넷 채팅 앱 디스코드를 통해 ‘n번방’처럼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을 만들어 음란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문제는 운영자 및 유포자의 대다수는 미성년자였고 일부 채널을 운영한 이들 중에는 촉법소년인 초등학생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가리킨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동성애자 초등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자신을 올해 6학년 올라가는 양성애자라고 소개한 초등학생은 최근 자신이 양성애자인 것을 알게 됐으면서 동성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고 초등학생이 읽기에 적절한 동성애 책이 없냐는 질문을 올렸다. 이에 자신도 양성애자라고 밝힌 별꽃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은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동성애를 다룬 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책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성범죄와 동성애 확산을 부추기는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받게 되는 부적절한 성교

육도 한 몫 한다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이하 우학연)가 지난 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보건 교과서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 그림이 그대로 삽입돼 있어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자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BM에서 나온 초등 5학년 보건 교과서 77쪽에는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 하나, 발기’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를 적나라하게 그려놓고 있다. 발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 아직 어린 초등 5학년생에게 매우 부적절하게 성적 자극을 주고 있다. 또한 YBM 6학년 보건 교과서 역시 74페이지와 78페이지에 남성과 여성의 성기 그림을 그대로 삽입했다. ‘동생이 태어났어요.’라는 부분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성기의 그림을 삽입했으며, 성기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놨다.

이러한 성교육 유사 사례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있었다. 캐나다의 한 학교 가정통신문에는 “초등학교 6학년에 맞춘 교육”이라며 “생식기의 변화와 기능 관련” 내용을 교육하겠다고 돼 있다. 또



▶ 초등학생들의 성범죄와 동성애 확산에 교과서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복음기도신문)

한 8학년 통신문에는 “성병과 관련된 고위험 행동과 예방, 감염 경로, 징후를 배워 본다.”고 돼 있다. 이에 한 학부모는 “아이들은 이 수업을 거부했다.”며 “그런데도 각각 남녀의 성기의 세부 명칭을 그림을 가지고 적게 하고 그것으로 퀴즈를 풀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가)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 6학년 아이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그 교과 과정이 앞으로 더 내려온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 지역에서 YBM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는 2009년 기준, 음봉초등학교, 월량초등학교, 동포초등학교, 선장초등학교, 금곡초등학교, 연화초등학교, 탕정미래초등학교, 동덕초등학교, 온양동신초등학교, 온양권고초

등학교, 충무초등학교, 아산초등학교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에는 인천의 모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로 음란물 수준의 초등 5학년 보건 교과서를 회수했다. 해당 보건교과서는 (주)동아사에서 출간한 것으로 ‘소중한 나를 가꾸는 보건’이다. 이 보건교과서의 69쪽을 보면 ‘남자의 생식기관과 생리현상’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남성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그 다음 70쪽에는 ‘남자에게 나타나는 생리현상’에 대해 다루면서 남자의 성기가 발기하여 사정하는 모습까지 그려놓고 상세히 설명했다. 72쪽은 ‘음경과 포경’에 대하여 다루면서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배울 수 있는 포경수술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기술해 놨다. <계속> [GNPNEWS]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4. 24 ~ 5. 13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고은영 권순호 김사회 김수미 김애심 김영신 김유남 김혜신 노성미 노은옥 문미현 박경희 박성규 박숙자 안민자 안병운 안수경 유국주 이경희 이남준 이미영 이삼연 이영옥 이은주 이준진 이진희 장근혜 장은희 장진 정윤희 조경미 조명숙 조형광 차익수 차정규 최근희 최점옥 하은숙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게르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사랑샘교회 산돌교회 시은자교회 시흥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참종양터라교회 처음사랑교회 하원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복음기도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